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④

# 아상이 없으면 상대적인 인상도 없다

앞 문장에서 '인상과 아상을 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은 이세십이인연(二世十二因緣)을 추구해서 살피는 것이다. 무명(無明)으로부터 유(有)에 이르기까지가 현재십지인(現在十支因)이 되고, 생사는 미래이지과(未來二支果)가 된다.

가령 이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추구해보면 부모가 남겨주신 몸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교합을 하고 중음신(中陰身)의 허망한 식이 없다면 이도 역시 몸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중음신으로서 생을 받을 원인이 있어야 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는 인연을 빌려서 이 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과 연을 추구해 볼 때 각자 일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만일 각자 태어나는 성질이 따로 있다면 동시에 두 명이 태어나야만 하고, 태어나는 성질의 화합하여 서로 함께 공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이도 역시 태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추구해 볼 때 공동으로 화합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몸에서 아상을 추구해보아도 끝내 실체를 얻지 못한다.

아상이 없으면 그에 상대되는 인상도 역시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상이 있어야 만이 동시적으로 인상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아상과 인상은 상대적인 의존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세십이인연은 아상과 인상이라는 차별적인 견해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실제로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단견과 상견을 멀리 떠나서 아상과 인상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안온하여 지혜가 개발되고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법에 대한 희열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일체 육진경계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오음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한다. 이 오음으로 이뤄진 몸에 대한 집착은 마치 그늘이 광명을 가리듯 우리의 진실한 본성을 덮어버린다. 때문에 '다섯 가지 그늘' 이라고 하였다.

십이처는 육근과 육진이고, 육식을 더하면 십팔계가 된다. 오음을 분류한 육입 십이처 십팔계에서 실제 자성을 추구해보았으나 그 모두도 실제를 얻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이는 지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수행했던 인연관이 금생의 선근 모습으로 발동한 것이다.

염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법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응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생이 미혹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갖가지 장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세존께서 그 병통에 따라 처방한 것도 각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오음으로 이뤄진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은 그늘이 광명을 가리듯 진실한 본성 덮어**

**五念佛善根發相 行者因修止觀故 若得欲界未到地定 身心空寂 忽然憶念諸佛功德 相好不可思議 所有十方 無畏不共三昧 解脫等法 不可思議 神通變化無礙說法 廣利衆生不可思議 如是等 無量功德 不可思議**

다섯 번째로 염불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선근의 공덕에 대해 밝혀보기로 하자.

우리가 금생에 생사고해 가운데 몰입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해서 안 되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경전강의를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도 모두 과거의 선근공덕 때문이며, 환희심으로 염불을 하고 서방극락세계에 왕생을 발원을 하는 것도 역시 과거 전생에 염불하기를 좋아했던 선근이 발현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우리가 전생에 염불할 때 산란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원하지 않고 죽음에 임박한 즈음에야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했기 때문에 생사를 끝내지 못하고 거듭 괴로움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전생에 이와 같이 염불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훈습을 받는다면 즉시 기쁜 마음으로 염불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흩어진 마음이 없이 간절하게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임종할 때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아미타부처님을 직접 뵙고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생에 얻게 되는 것은 모두 과거 전생에 심은 선근의 씨라는 점이다. 이로써 관찰해보면 끝없이 망망한 생사의 바다가운데서 선근을 심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다.

염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법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응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생이 미혹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갖가지 장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세존께서 그 병통에 따라 처방한 것도 각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령 깜깜한 혼침의 장애가 있어 무기의 상태에 빠졌을 땐 반드시 응신불을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치해야만 한다. 또 악한 생각으로서 장애가 일어나 오욕과 십악 등의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보신불을 염불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여래과보의 몸인 보신불은 십력(十力) 사무소외(四無所畏)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등 한량없는 삼매를 만족하게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신불을 염불하면 악한 생각을 대치할 수 있다.

대상경계가 자신을 핍박하는 경우 가령 몸이 홀연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손발이 없어지거나 또는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염불함으로써 대치해야만 한다.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비로자나 법신은 차별적인 모습이 없어 그 자체가 공적하고 조작이 없다. 때문에 중생이 경계의 핍박을 받을 경우 비로법신불을 염불하면 바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로법신은 공적하여 따로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수행인이 과거 전생에 이 같은 세 종류의 염불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지관을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공적하여 홀연히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상호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 경계는 삼매를 얻은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가 공적하게 된다.

공적한 것은 단지 있다고 집착하는 모습만 고요할 뿐 대상 자체마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두고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한다. 때문에 공적한 가운데서 홀연히 모든 부처님 공덕과 상호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응신불을 염불하는 데서 일어난 선근이 모습이다.

모든 부처님 여래의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는 원력 수행의 공덕으로서 장엄하였다. 따라서 낱낱의 상호마다 미묘하지 않음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언어로 의론하지 못한다. 때문에 모든 부처님 지혜와 공덕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신불을 염불하는 데서 일어나는 선근공덕의 모습이며, 걸림없는 설법을 통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법신불을 염불해서 발현한 선근발상이다.

법신은 여여하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서 중생에게 감응의 교화를 일으킨다. 대비 원력으로 구계(九界)중생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한다. 이와같은 한량없는 제불공덕은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십이인연(十二因緣)

우선 십이인연의 명칭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그 개념을 간략히 서술해보겠습니다.

1)무명(無名)
무명은 모든 유정들이 무의식 속에 내재한 잠재적이고 본능적인 심리활동입니다. 이는 탐 진 치 '삼독심' 가운데서 치심에 해당됩니다.

2)행(行)
행은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행은 업(業)이라고도 하는데, 신 구 의 삼업(三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식(識)
식은 인식주관의 여러 가지 요소, 즉 육식신(六識身)입니다. 이는 안식으로부터 의식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유식술기(唯識術記)' 에서는 "이 식은 제팔아뢰야식으로서 친인연(親因緣), 즉 자류과(自類果)를 내는 직접적인 종자세력으로 자체를 삼는다"라고 하여 '연기경(緣起經)' 에서 말하는 육식신(六識身)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명색(名色)
명색은 인식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인식활동입니다. 즉 오온 가운데서 수 상 행 식 '사온(四蘊)' 은 명(名)에 해당되고, 나머지 색온(色蘊)은 색(色)에 해당됩니다.

5)육입(六入)
육입은 감각작용입니다. 이는 십이처(十二處)에서 이미 살펴본 내육처(內六處)로서, 즉 안처(眼處)로부터 의처(意處)까지 말합니다. 육촉신(六觸身)이라고도 하고, 또는 육처(六處)라고도 합니다.

6)촉(觸)
촉은 감각작용입니다. 육입(六入)이 있기 때문에 촉 역시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입이 촉과 동시적인 인연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입이라는 여섯 종류의 도구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떠오른 육경(六境)으로 추구하면서 그 대상을 분별심으로 취하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육경을 상대적으로 취하면서 그 대상경계를 흡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 밖에 있는 실제의 사물이라는 감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같은 감각인식작용을 '촉' 이라고 합니다.

가령 육입 가운데 안입(眼入=眼根)이 그 대상경계로 떠오른 색경(色境)을 마주했을 때 색경은 자기 안식분별의 모습임을 모르고 자기 인식 밖에 따로 실재하는 사물로 여기고 감각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촉은 육입과 인연관계를 이루면서 육경에 대한 감각작용을 동시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702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절충 가능)
011-9393-4965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요지
● 평수 : 단독 1층건물 27평
작은마당있음
● 아미타,관세음,지장보살,후불탱등
고급신조성시설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600만원
042)623-3309
011-457-334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 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 4층 중 4층
● 석가모니불,관음지장,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관음원불,132불, 법당 외
방2개,주방1,화장실 45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포교원 안내
● 부산 사상구 덕포지하철역 바로,
버스정류장 바로. 교통 최요지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일절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가격절충
● 법사, 스님에게 적합
010-4557-2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010-5013-2526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80평)
● 법당(40평), 요사채(40평)
●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 대지 75평, 건평 25평
● 한티재 가는 길목
● 전부 개축 깨끗하고
시설완비
● 가액 : 9천만원
011-522-6550

매매 부동산 표시
사찰부지및별장적합 급매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산78번지
29,066제곱미터(8,792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1번지
전 3,031제곱미터(917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번지
전 1,250제곱미터(378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1번지
전 4076제곱미터(1,233평)
총 37,423제곱미터(11,320평)
가액 : 1억2천만원
010-9945-2030

대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 자연환경: 일월산 밑 질성봉에 대미륵불 발견
천년생 약수터 전면에 하천 주변은 질보석
암벽지대
● 조성환경:대지2700평을 토목공사 완료
고급관상수 와 약재목 식재 골프잔디밭,
칠보석 축조된 연못,사원내 포장도
심야전기 난방 40미리수도관
● 사찰규모: 대웅전 70평,요사채 90평,산신각 8평
기타건물 3동 불연성건물 별장같은
사찰을 안내합니다. ● 가액 : 6억원
011-538-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 1분거리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 평수 : 약40평,3층 중2층전체
● 구조 :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 가액 : 5억
011-9114-99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 3층건물중 3층(50평)
● 법당,삼존불
거실,방2개(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74

소백산 자락 사찰터,별장터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산 270m고지
(영주시에서 10분에서 15분거리)
● 관리지역 및 독립구역 5,300평,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가능
명당터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016-573-2032
(명당터 보실분만 사전 연락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도로변 전철 3분
● 3층 : 40평, 법당, 방 2칸,
주방, 욕실
4층:방大1칸,옥상 단독 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전,월세 절충가)
시설비 500만원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 3개. 주방 1개. 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 010-6582-2588